

한·중 교육분야 교류 확대 논의

애호가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담당공사, 서거석 교육감 예방... 국제교류수업·학생 해외연수에 큰 관심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찾은 주한 중국대사관 애호가 교육공사와 중국과의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애호가 교육공사와 이혜민 3등 서기관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국 지원 방향 △중국 지역(성)교육청과 MOU를 위한 협력 방안 △학생 및 교직원 의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 △기타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애호가 교육공사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과 학생 해외연수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애호가 교육공사는 “교육 분야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의 국제교류 담당자들과 주한 중국대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찾은 주한 중국대사관 애호가 교육공사와 중국과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관 교육분야 담당자들 간 실무 협의회를 9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한·중 우호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간 활발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청과 중국 지방정부와의 활발한 교류에 초석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시군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14개 시군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3월 28일 교원지위법 시행으로 새로워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현장 안착과, 지역교육보호위원회 운영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현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역교육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특이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설치된 지역교육보호위원회는 관할지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역교육보호위원회의 운영 △사안 처리 대응 방법 △학교 민원대응체계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세부 사항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강사로 참여한 최성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전담변호사는 “지역교육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업무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12일 지역교육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각급 학교장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4일 한옥 건축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를 찾은 외신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한옥 건축 우수성 외신기자들 ‘뜨거운 관심’

미국 등 10명 외신기자들 고창캠퍼서서 취재 열기 한옥 건축 현장 다큐멘터리 제작... 한옥 세계화 기여

전북대학교의 한옥 건축 우수성이 외신 기자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옥 건축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고창캠퍼스에 때 아닌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의 대표 건축양식인 한옥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진 미국과 싱가포르, 중국, 국제방송 등 10명의 외신기자들이 한옥 건축 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는 고창캠퍼스의 면면을 취재한 것.

이번 외신 프레스투어는 국토교통부가 한옥건축에 관심이 있는 외신기자단의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특히 이날 오후 1시 30분 전북대 고창캠퍼스를 찾은 이들은 한옥건축사업단 단장으로부터 전북대 한옥건축 교육 커리큘럼과 한옥 수출 등 간의 성과 등을 전해 듣고, 실제 한옥 건축 실습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을 촬영하거나 교육생들을 인터뷰하는 등 꼼꼼한 취재를 이어갔다.

이날 전북대 한옥 교육생들은 한옥부재를 하나하나 짜맞춰 실습용

한옥정자를 건립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가 추진한 한옥설계 과정에 선정돼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이었다.

아리랑TV와 중국 CCTV외신 등은 전북대의 한옥 건축 교육의 면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자국에서 방영할 계획이어서 우리 고유의 전통 양식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이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해경 한옥건축사업단장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스, 불가리아 등에서 우리 한옥을 국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외신의 소개를 기회로 한옥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그동안 양질의 한옥교육을 통해 최우수 교육기관에 연이어 선정됐으며, 지금까지 500여 명의 한옥설계 전문인력을 배출해왔다. /장은성 기자



5일 임실문화원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렸다.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실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원 강화”

서거석 교육감, 임실서 학부모·교직원들과 '공감토크'

서거석 교육감이 5일 임실문화원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공감토크에서 학력신장 등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 후 참석자들과 △농촌유학 확대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전북벚꽃 육성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작은학교 통합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소통했다.

이어 전북벚꽃고등학교를 찾아 글로벌 특성화고 사업과 직업계고 학점

제 공간조성 사업 등 학교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임실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언급하며 “한국치즈과학고와 전북벚꽃고등학교가 지역특화 특성화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부모에 손배 청구”

“학교 교육력 위축”... 도내 교원단체, 교권보호 7개 과제 반영 촉구 청원 서명운동 전개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도내 교원단체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생의 다름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 지역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 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육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전북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준영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절정은 교권의 존중”이라며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한 도내 교원단체는 교권보호 및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7개 과제 반영 촉구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7개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 △부분별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LINC 3.0 사업단

학과 전용 교육학습 앱 개발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5일 학과 전용 Private LLM 인공지능 모델인 ‘GPT-V’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전기공학과 교수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GPT-V는 입시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AI로서 학습과 입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GPT-V는 전기공학과와 산학연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AI 도우미는 MZ 세대의 학습 스타일과 수요를 반영해 개발된 맞춤형 모델로, 학생들이 보다 친숙하고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또 챗봇 및 교과목 전문 튜터링 모델 등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2025년 대학 입시에서 대학 및 학과 소개, 입시 상담 홍보 도우미로 적극 활용,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하는 등 전기공학과와 입시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학 관계자는 “앞으로도 LINC 3.0 사업과 연계해 산학협력 기반의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기공학과와 GPT-V는 학과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저소득 학생에 추석 명절지원금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급여 수급자 1만9000여명 대상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 학생에게 연간 12만원을 지급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 사업이다.

따뜻한 밥상 지원금으로는 생일 축하 지원금 4만원, 명절맞이 지원금 4만원 등 총 12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2만1000여명의 저소득 학생에 24억여 원이 지급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교육급여 계좌로 지급한다.

특히 올 추석에는 9월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역이 생긴 1만9,000여명의 학생에게 지원금이 전달된다.

또한 9월 생일 축하 지원금 대상 1,600여 명에게도 9월 말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일과 명절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석을 맞아 도내 학생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산업 활성화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전북대 산학협력단, 한국산업공 전북본부와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은 5일 군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배)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 R&D 수요 기술 발굴 및 대학 보유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및 산업 교육 운영 등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의 핵심 전략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기업 지원 등에 나서는 전북대와



함께 지역 기업의 애로 기술 해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